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과정 박문현

The Fact about 『Chim Gu Jib Sung』 that Two
Acupuncture Literature of Chosun Era are Compiled.

Park Mun-hyun

Through the research, I have found out that 『Chim Gu Jib Sung』 is deeply influenced by 『Dong Eui Bo Gam』, experienced acupuncture diagnosis literature of Chosun era. Also mistakenly recoded statements about 『Chim Gu Jib Sung』 in all sorts of acupuncture literature nowadays should be corrected.

I. 서론

『침구경험방』에 수록되어 있는 別穴(경외기혈)의 출처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內太衝”이라는 별혈을 몇몇 침구서적에서 찾아 보았다.

“《鍼灸集成》：內太衝二穴，在足太衝穴對內傍隔大筋陷中，舉足取之，主治疝氣上衝，呼吸不通，鍼一分，灸三壯，極妙”¹⁾²⁾

그 출전이 『침구집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는 “百勞”，“甲根” 등의 경외기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경외기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침구경험방』의 내용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1874년 간행된 『침구집성』이 아닌 1644년 허임에 의해 저술된 『침구경험방』이 그 출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

1) 『신편침구대사전』 1995, 華夏出版社, p.179

2) 郝金凱, 『鍼灸經外奇穴圖譜』, 1982, 陝西人民出版社, p.389

까?

이렇게 하여 『침구집성』이라는 책을 살펴본 결과 『침구경험방』뿐 아니라 허준의 『동의보감』과 장개빈의 『유경도익』 일부를 이리저리 섞어가며 모아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침구집성』은 1874년에 간행된 청대의 대표적인 침구의서 중의 하나로 알려진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된지 100여년이 넘도록 그 바른 실체가 숨겨져 있었고, 최근까지도 정확한 고증이 결여된 잘못된 사실들이 계속 활자화 되었다. 이는 물론 이 책이 조선의 양대 침구의서를 위주로 하고 있어 중국 학자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청대에 간행된 침구의서 정도로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다행히도 최근 중국의 침구문헌가인 黃龍祥은 『침구집성』이라는 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³⁾ 그는 이 책이 抄錄한 원래의 책이름과 저자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금도 개편한 것 없이 사이사이 끼워 넣기만 한 문헌적 가치가 없는 일종의 僞書라고 혹평을 가하고 있다. 이는 물론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말이 아니라 편찬한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침구집성』의 구성목록을 통해 그 편집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침구집성』에 대한 일부 침구서들의 혼란스러운 언급들을 바로 잡아 정리하여, 침구문헌의 원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본 론

1. 침구집성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

(1)저자에 대하여

료윤홍(廖潤鴻)은 자가 규빈(逵賓)이며, 湖南 涿江(지금의 호남성 澧陵)인으로 침구에 능했던 청대의 의가이다. 淸 咸豐14년(1835년)에 출생하였으며 죽은 해는 미상이다. 그는 여러 방면에 두루 박학하였는데 특히 鍼灸穴法의 고증에 있어서 조예가 깊었고, 淸 同治13년(1874년) 『考證周身穴法歌』라는 책을 지었다.⁴⁾ 『침구집성』 역시

3) 黃龍祥, 1996, 『鍼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1214

4) 沈愛學, 包黎恩 点校, 『면학당침구집성』, 1994, 인민위생출판사

그의 편저로 알려져 왔다.

한편 초소경(肖少卿)은 『침구집성』의 서언에 “今歲夏偶遇明師以『鍼灸集成』相示, 因而讀之”라고 써여 있는 점과 『中國鍼灸薈萃·現存鍼灸醫籍之部』에서 『침구집성』을 명대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료운홍 본인이 아니며 그는 다만 간행자일 뿐이고 작자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말한다.⁵⁾

그러나 황용상은 『침구집성』의 편자가 료운홍이 아니라고 말한다. 『침구집성』에 나오는 서문은 실은 료운홍의 다른 책인 『考正周身穴法歌』⁶⁾의 서문이라는 것이다. 청대의 어떤 사람이 조선의 양 침구의서와 『유경도익』을 모아 “침구집성”이라고 이름붙인 후, 료운홍의 『고정주신혈법가』의 서문을 가져다가, 그 내용 중 “鍼灸大成”이라고 쓴 두 곳을 “鍼灸集成”이라고 바꿔 쓰고, 맨 끝의 “都門琉璃廠有眞樂齋寄廬” 11자를 없애고, 거짓으로 료운홍의 이름을 빌려 『침구집성』을 간행했다는 것이다.⁷⁾

(2) 간행과 판본에 대하여

『침구집성』은 淸 同治13년 甲戌(1874년) 북경의 文寶堂에서 『勉學堂鍼灸集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된 후 여러차례 翻刻되었다. 淸 光緒5년 乙卯(1879년)에는 京門琉璃廠寶名齋 각본을 비롯해 文寶堂 각본, 藏版本, 淸刻本등 4종의 판본이 북경에서 간행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 책이 매우 유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후에도 民國19년(1930년) 北京天華館鉛印本, 1933년 合川慈善會 刻本, 1936년 北京打磨廠老二西堂 刊本 등이 있다. 1956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도 있는데, 이 판본은 근래까지 광범하게 유행한 판본이다.⁸⁾ 최근에도 두 종류의 点校本이 간행되었다.⁹⁾

2. 『침구집성』의 편제 검토

(1) 『침구집성』의 권별 목록

5) 肖少卿, 『중국침구학사』, 1997, 寧夏人民出版社, p.445

6) 이 책은 필자도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7) 황용상, 상계서 p.1214

8) 沈愛學, 包黎恩 点校本, 상계서.

9) 廖潤鴻 編撰, 『면학당침구집성』, 1998, 중국중의약출판사 沈愛學, 包黎恩 点校本, 상계서.

『침구집성』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권은 “침구집성”으로, 3,4권은 “經穴詳集”으로 되어 있다. 권1은 침구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싣고 있다.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鍼法, 灸法, 禁鍼穴, 禁灸穴, 訛穴, 十四經脉循行과 病候, 鍼灸吉日 등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베꼈다. 『동의보감』→『침구경험방』→『동의보감』 순으로 번갈아가며 옮겨 놓은 것이다. 권2는 인체 각 부위에 따른 병증에 대한 침구치료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역시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을 전록하고 있다. 『침구경험방』→『동의보감』의 순으로 옮겼다. 권3, 권4는 경맥과 경혈에 대한 내용이다. 십사경맥의 유주와 수혈의 부위, 주치작용에 대해서는 『유경도익』 권6과 『동의보감』을 번갈아 옮겨다 놓았고, 경외기혈은 『유경도익』 권10과 『침구경험방』, 『동의보감』의 「별혈」에서 집록하였다. 140여개에 이르는 경외기혈의 명칭, 부위, 주치에 대해 정리하였다. 각 권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1권〉: 製九鍼法, 鍊鍼法, 四時鍼法, 鍼刺深淺法, 火鍼法, 點穴法, 量分寸法, 製艾法, 灼艾炷法, 取火法, 下火灸時法, 灸法, 壯數多少法, 發灸瘡法, 療灸瘡法, 調養法, 鍼灸不可并施, 不耐鍼灸, 用鍼須合天時, 鍼補瀉法, 用鍼宜審逆順, 五奪勿用鍼瀉, 鍼法有瀉無補, 灸補瀉法, 鍼灸禁忌, 鍼要得術, 鍼有上工中工, 鍼入着肉

(이십 『동의보감』에서 주록)

鍼灸法, 禁忌, 灸後治法, 灸後有熱, 禁鍼穴, 禁灸穴, 別穴, 募穴, 原穴, 會穴, 訛穴, 五臟總屬證, 一身所屬臟腑經, 五臟六腑屬病,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足少陰腎經, 手厥陰心包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 督脈, 任脈, 十二經井榮腧經合傍通

(○ 십 『침구경험방』에서 주록)

十五絡所生病, 脉病有是動有所生病, 脉有經脉絡脉孫絡脉, 十二經血氣多少, 十二經行度部分, 氣行有街, 鍼法有巨刺繆刺散刺, 奇經八脉, 子午八法, 子午流注, 五臟六腑所屬五腧五行, 五臟六腑有疾當取十二原, 臟腑要穴, 六合所出所入, 足三焦別脉, 八會穴, 六經標本, 人身四海腧穴, 大接經主病要穴, 禁鍼穴, 奇穴, 別穴, 諸藥灸法, 難足鍼法, 擇鍼灸吉日法, 太乙徒立於中宮朝八風占吉凶, 九宮圖, 身形應九野, 太乙遊八節日數, 九宮尻神圖, 逐日人神所在, 每月諸神值日避忌傍通圖

(이상 『동의보감』에서 전록)

〈권2〉: 折量法, 頭部, 背部, 膺部, 腹部中行, 頭面部, 耳部, 目部, 口部, 鼻部, 咳嗽, 咽喉, 頰頸, 齒部, 心胸, 腹脇, 腫脹, 鍼中腕穴手法, 積聚, 手臂, 腰背, 脚膝, 風部, 癩癩, 厥逆, 急死, 痢疾, 痔疾, 陰疽, 霍亂, 瘡疾, 虛勞, 勞瘵, 四花穴, 食不化, 黃疸, 瘡腫, 騎竹馬穴法, 五逆證察色, 回骨證, 諸藥灸癰疽法, 癰疽疔疽瘰癧等瘡八穴灸法, 瘰癧, 蠱毒, 眠睡, 內傷瘀血, 消渴, 汗部, 傷寒及瘟疫, 大小便, 身部, 嘔吐, 婦人, 乳腫, 小兒, 五癩, 雜病, 九宮數, 每月諸神值日避忌傍通圖, 太乙遊八節日數

(이상 『침구경험방』에서 전록)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胞, 蟲, 小便, 大便, 頭,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胸, 乳, 腹, 腰, 脇, 皮, 肉, 脉, 筋, 骨, 手, 足, 前陰, 後陰, 風, 寒, 濕, 火, 內傷, 虛勞, 霍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瘰癧, 瘟疫, 邪祟, 癰疽, 大風瘡, 瘰癧, 癭瘤, 疔瘻, 疥癬, 賺瘡, 犬傷, 諸蟲傷, 蠱毒, 卒死, 婦人, 小兒

(이상 『동의보감』에서 전록)

〈권3〉: 手太陰肺經(『유경도익』에서), 十二經脉流注腧穴, 手太陰肺經流注, 手太陰肺經左右各二十二穴(이상 『동의보감』에서), …… 수양명대장경→족양명위경→족태음비경→수소음심경→수태양소장경→족태양방광경

〈권4〉: 권3을 이어 족소음신경→수궤음심포경→수소양삼초경→족소양담경→족궤음간경→임맥→독맥의 순으로 실음.

이어서 經外奇穴을 頭部, 面部, 頸項部, 膺部, 腹部, 背部, 手部, 足部, 陰部로 나누어 정리.(『유경도익』 권10 | 奇兪類集 |,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의 | 別錄 |로부터 전록)

마지막으로 禁鍼穴, 禁灸穴 수록.

(2) 경외기혈 집록출처 분류

『침구집성』은 경외기혈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침구의서로 알려져 왔다. 143개의 경외기혈을 집록해 놓고 있어 『천금방』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경외기혈을 실고 있다. 그 출처를 살펴보면 『유경도익』에서 81개혈, 『침구경험방』에서 53개혈¹⁰⁾,

10) 『침구경험방』의 별혈은 『동의보감』에서 많이 인용했지만, 『침구집성』에서는 『침구경험방』의 내

『동의보감』에서 7개혈, 『침구대성』¹¹⁾에서 2개혈이다. 경외기혈의 배열에 있어서는 『유경도익』에서의 頭面部, 胸背腹脇部, 陰部, 四肢部로 나누어 부위별로 정리한 방식을 더 세분화하여 頭部, 面部, 頸項部, 膺部, 腹部, 背部, 手部, 足部, 陰部の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① 『유경도익』에서 집록한 혈¹²⁾

- 前神聰, 後神聰, 髮際, 陽維, 當陽, 耳上穴 (이상 頭部)
- 印堂, 海泉, 左金津右玉液, 脣裏穴, 夾承漿, 燕口, 鼻交頰中, 魚尾, 顛顛(섭유) (이상 面部)
- 機關 (頸項部)
- 龍領, 乳上穴, 通谷, 腋下穴, 肋頭, 肋罅(늑하) (이상 膺部)
- 長谷, 腸遺, 盲募, 脇堂, 身交, 胞門, 子戶, 氣門 (이상 腹部)
- 魂舍, 後腋下穴, 脊背五穴, 巨闕俞, 督俞, 氣海俞, 關元俞, 夾脊穴, 下極俞, 十七椎穴, 廻氣, 濁浴, 腰眼 (이상 背部)
- 大骨, 拳尖, 五虎, 中魁, 手中指第一節穴, 中泉, 手掌後白肉際穴, 手掌後臂間穴, 虎口, 手足髓孔, 兩手研子骨, 河口, 肘尖 (이상 手部)
- 膝眼, 髌骨, 風市, 交儀, 營池, 漏陰, 足太陰穴, 足太陽穴, 足踝, 外踝尖, 踝尖, 內崑崙, 承命, 足踵, 陰陽穴, 獨陰, 足第二指上穴, 手足小指穴, 足大指橫紋穴, 手足大指爪甲穴 (이상 足部)
- 橫骨, 泉陰, 陰囊下橫紋, 陰莖, 羊矢 (이상 陰部)

② 『침구경험방』에서 집록한 혈¹³⁾

- 神聰四穴, 太陽穴, 明堂, 眉衝 (이상 頭部)
- 鼻準, 耳尖, 聚泉 (이상 面部)
- 百勞 (頸項部)
- 旁廷, 乳下¹⁴⁾ (이상 膺部)

용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혈을 인용 배열한 양상에 따른 것이다.

11) ‘睛中’, ‘高骨’ 두 혈은 『유경도익』, 『동의보감』, 『침구경험방』에 나오지 않는 혈이다. 『신편침구대사전』에 의하면 이 두 혈은 『침구대성』에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12) 장개빈, 『유경도익』 1986, 대성문화사, p.203~210.

13) 허입, 『침구경험방』 (한국의학대계38권내), p.500~508.

14) “乳下” 이하 밑줄친 16개의 혈은 『침구경험방』 치료문에 산재하는 혈들로 확인되었다. 『침구경험방』에서 혈명으로 정하지 않고 부위로만 언급되어 있던 것을 『침구집성』에서 이를 경외기혈에 포함시켜 정리한 것이다. 허입은 이 혈들을 『침구경험방』 ‘별혈’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들 혈들의 『침구경험방』 내 출처는 다음과 같다. 쪽수는 『한국의학대계분』에 의한 것이다.

- 通關, 直骨, 陰都, 子宮, 臍下六寸, 臍旁穴, 經中穴 (이상 腹部)
- 下腰, 環岡, 胛縫, 精宮, 崇骨, 肩柱, 尾窮骨, 膝旁, 脊骨旁 (이상 背部)
- 小骨空穴, 二白, 龍元¹⁵⁾, 大都, 上都, 中都, 下都, 四縫, 十宣, 大指甲根, 手大指甲後, 手大指內側橫紋頭, 手表腕上踝骨尖端, 鬼眼四穴 (이상 手部)
- 鶴頂, 陰獨八穴, 呂細, 內太衝, 甲根, 足大指甲根, 踝下, 足大指節, 阿是穴 (이상 足部)
- 關門, 囊底, 勢頭¹⁶⁾ (이상 陰部)

③ 『동의보감』에서 집록한 혈¹⁷⁾

- 魚腰 (面部)
- 腸繞¹⁸⁾(腹部)
- 八關八穴, 奪命 (手部)
- 血鄰, 氣端, 通理 (이상 足部)

④ 『침구대성』에서 집록한 혈¹⁹⁾

- 睛中(面部), 高骨(手部)

(3)바람직하지 못한 삭제

『침구경험방』에는 우리말로 된 병증명이 23곳에 걸쳐 나온다. 그런데 중국서점출판에서 영인한 『침구집성』의 경우 이 우리말 부분의 활자를 검은 기둥으로 지워놓고 있다.²⁰⁾ 이는 원판본에서부터 그렇게 한 것인지, 영인할 때 지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은폐로 여겨진다. 최근 인민위생출판사에서 간행된 『면학당침구집성』에서는 이들 부분을 □표시로 처리하고 있다.

‘乳下’(腹脇門 p.531), ‘臍下6寸’(陰疝門 p.554), ‘臍旁穴’(陰疝門 p.555), ‘經中穴’(대소변 p.594), ‘尾窮骨’(腰背門 p.539), ‘膝旁’(腰背門 p.539), ‘脊骨旁’(腰背門 p.539), ‘大指甲根’(咽喉門 p.525), ‘手大指甲後’(目部 p.520), ‘手大指內側橫紋頭’(目部 p.520), ‘手表腕上踝骨尖端’(齒部 p.527), ‘鬼眼4穴’(소아문 p.602), ‘足大指甲根’(心胸門 p.528), ‘踝下’(腫脹門 p.532), ‘足大指節’(癩癩門 p.547), ‘勢頭’(癩癩門 p.547)

15) 『침구경험방』에는 ‘龍女’으로 되어 있다.

16) ‘勢頭’는 ‘음경혈’을 말하는데, 『침구집성』에서 붙인 이름으로 보여진다. 『침구경험방』癩癩門의 치법에서부터 뽑아낸 혈이다.

17) 허준, 『동의보감』, 1983, 남산당, p.781~782.

18) 『동의보감』에는 ‘腸繞’로 되어 있다.

19) 양계주, 『침구대성』, 1985, 대성문화사, p.384

20) 이 책은 1986년 북경의 中國書店出版에서 간행된 영인본이다. 원판본의 간행연도는 알 수 없다.

Ⅲ. 고 찰

이상 『침구집성』의 목록과 일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책이 조선의 침구 문헌인 『침구경험방』, 『동의보감』 및 청대의 『유경도익』 세 책을 엮어 만든 것임을 살펴보았다. 우리 눈에 친숙한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의 목록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아니라 내용도 완전히 똑같다. 심지어 『침구경험방』의 경우는 전책의 글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동의보감』의 경우도 “침구편”과 나머지 편중에 흩어져 있는 “침구법”을 거의 모두 추려 실고 있다. 그리고 『유경도익』 6~8권 “經絡”을 그대로 옮기고, 10권 “奇愈類集”의 혈들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러한 『침구집성』의 실상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침구집성』을 침구 저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책은 새로이 추가한 내용이나 개편한 것 없이 내용 전체가 타서의 글자를 그대로 모아 놓고 있다. 몇 개의 권을 나누어 개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세 종류의 책을 엮갈려 교차하여 엮었을 뿐이며, 그 결과 오히려 여러 곳에 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²¹⁾ 다만 권4에서 경외기혈을 부위별로 정리한 것이 약간의 편집의 성격을 띤 유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집록에 불과하므로 이들 경외기혈을 원래 수록한 책을 그 출전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침구경험방』의 치료문에 산재하는 부위만 언급된 16곳의 혈들을 경외기혈로 혈명화시켜 정리한 것은 의욕은 좋았으나 혈위나 주치 등이 분명치 못하고 중복을 보이기도 하여 엉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책은 엄밀하게 저술이라 할 수 없는 “침구자료집”에 불과하다. 『동의보감』의 침구관련 부분과 『침구경험방』을 위주로 집록한 조선의 침구자료집인 셈이다.

둘째, 『침구집성』의 불량한 편집태도는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다른 의서를 전록했으면서도 그 원서의 책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설령 자료를 모아만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원서명을 소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저술한 양은폐한 것은 원서의 저자에게 큰 학문적 결례이자 비열한 방법이다. 『동의보감』이 인용서명을 성의있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러

21) 이는 위에 언급한 목록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십사경에 대한 부분의 경우 『침구경험방』, 『동의보감』, 『유경도익』 세 책의 것을 중복하여 실고 있고, 질병별 침구치료에 있어서도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의 질병항목이 상당수 중복된다.

한 『침구집성』의 편집태도가 후대의 침구문헌 연구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다.²²⁾ 아울러 이점과 관련하여 침구문헌을 연구할 때나, 저술할 때 반드시 원서를 확인하는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오류를 되풀이 하는 누를 범치 않게 될 것이다.

셋째, 각종 침구관련문헌 내에 실려있는 『침구집성』에 대한 잘못된 사실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침구의학사, 침구사전류 등에는 『침구집성』이 집록한 원서의 서명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책이 거의 없다. 일부 문헌²³⁾은 『유경도익』에서 전록하였다고 되어 있고, 『동의보감』을 함께 집록하였다고 한 문헌²⁴⁾도 있다. 그러나 『침구경험방』을 전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곧 침구전문서로서 『침구경험방』이 자신의 자리를 바로 찾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²⁵⁾ 지금까지 있어온 『침구집성』에 대한 평가는 옹당 『침구경험방』, 『동의보감』 그리고 『유경도익』이라는 각 책과 그 저자들의 몫으로 돌려져야 한다.

넷째,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을 축으로 하는 조선중기 침구의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완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말에 간행되어 최근까지도 침구전문서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던 『침구집성』이라는 책이 조선의 침구문헌을 집록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두 책은 원전에서부터 명대까지의 침구의서를 폭넓게 수용한 바탕위에 조선의 독자적인 침구임상경험을 가미하여 정리한 17세기 조선침구학의 성과이다. 이들 책이 국적이 감추어진 채 청말 이후 중국에서 유행하였다는 것은 곧 조선침구학이 19세기말~20세기 어간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22) 필자가 확인해본 많은 침구문헌들이 상당수 잘못되어 있었다. 최근 출판된 책들도 『침구집성』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8년 중국중의약출판사에서 간행된 『면학당침구집성』의 다음과 같은 교주설명은 그 한 예이다. “該書采輯清同治以前有關鍼灸的醫學文獻50餘種，從‘內經’‘難經’‘銅人’‘甲乙’‘千金’到‘醫學入門’‘醫學綱目’‘類經圖翼’等均有所載。全書從鍼灸學基礎理論到臨床應用，博采諸家之說，內容豐富全面，很大程度上反映着清以前鍼灸學術上的成就……” 즉 『침구집성』이 당대 이전의 50여종의 침구문헌을 채집하여 만든 책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침구학술상 큰 성취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류의 언급은 1994년 沈愛學, 包黎恩의 點校로 인민위생출판사에서 간행된 『면학당침구집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23) 국내에서 간행된 두 종의 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재동의 공편의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1997, 집문당, p.344.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찬,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1985, p.314

24) 王德深, 1996, 『中國鍼灸文獻提要』 인민위생출판사, p.164

25) 특히 『침구경험방』의 경우는 황용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는 『침구명저집성』의 ‘未收鍼灸名著提要’중에 『침구경험방』을 소개하고 있다. 『中國鍼灸文獻提要』에서는 조선의 침구문헌으로 『鍼灸擇日編集』과 『동의보감』을 소개하고 있지만, 『침구경험방』은 빠져 있다. 이러한 침구문헌에 대한 총람 형식의 책에 『침구경험방』이 빠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침구집성』의 집록태도가 후대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을 한데 묶어 놓음으로써 조선의 양대 침구 문헌을 중국땅에 부각시키고, 이들의 침구의학적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침구집성』이 의도하지 않았던 뜻 밖의 기여를 하였다고나 할까?

그러나 100여년이 넘도록 『침구집성』의 내용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의 침구문헌에 대한 정리와 소개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조선의 침구문헌이 해외에서 받은 주목만큼도 정작 제 땅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²⁶⁾

동양권의 긴 침구역사 속에서 많은 침구문헌들은 원래의 저술, 인용, 재인용, 재정리, 주해, 첨삭 등을 통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조선의 침구관련문헌도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적합한 자리를 찾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침구문헌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를 통해 원저자, 정리자, 편찬자 등을 잘 구분하고, 각 의가별 주장과 학설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함을 보여준 것도 『침구집성』 및 그와 관련되었던 오류가 남긴 교훈 중의 하나이다.

IV. 결 론

이상 『침구집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침구집성』은 『침구경험방』, 『동의보감』 “침구편”과 “침구법”의 全文을 갖다 쓰고, 『유경도익』의 일부를 옮겨 놓은 침구문헌자료집이며, 이를 저술로 보기는 곤란하다.
2. 편저자로 알려진 료윤홍은 『침구집성』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3. 집록한 책의 원서명을 명시하지 않은 『침구집성』의 편집태도는 매우 불량한 것이다.
4. 『침구집성』에는 143개의 경외기혈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는 각각 『유경도익』에서 81개, 『침구경험방』에서 53개, 『동의보감』에서 7개, 『침구대성』에서 2개의 혈을 뽑았다.
5. 현재 각종 침구문헌 내에 『침구집성』에 대해 잘못 기재된 사실들은 올바르게 고쳐져야 한다.

26) 주4)와 9)에서 언급한 최근 중국에서 간행된 두 종류의 『침구집성』 교주본은 이를 말해 준다.

6. 17세기 조선에서 간행된 『침구경험방』, 『동의보감』 두 침구문헌의 내용은 청말 이후 『침구집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침구학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